

漁港消息

발행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비매물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93 漁港예산 오히려 줄어 올보다 65億9千萬원이나

水産廳, 537億4千1百萬원 國會에 審議要請

'92對比 10.9%나 減少

據點漁港 우선 投資

수산청이 92년도 어항 예산을 537억4천1백만원으로 91년도의 603억3천4백만원에 비해 10.9%나 줄였다. 그중 1.3종어항 4백84억3천만원(91년 대비 11.0%), 2종어항 53억1천1백만원(10.0%)이 각각 감소했다.



■수정식한국어합회장은 지난 9월4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열린 김영삼총재와의 간담회에서 어항지정확대와 어항예산증액을 건의했다.

수산청의 따르면 내년 어항시설은 기존어항에 대해서는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신규투자자원은 재정상 93년도 이후로도 조장키로 했다.

最低價낙찰제로 落札者결정

落札者결정

정부는 UR협상을 국내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정부공사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한편 내년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정심사제(P-Q)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계약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9월18일 입법예고했다.

이른 지금까지의 저가심사제가 그 도입취지와 안 사행하던 저가심사제를 폐지하고 예정가격이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행적인 관행, 각 발주관서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결여등의 이유로 변칙적으로 시행돼 왔던 낙찰제에 대해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고 절차가 복잡해 각 발주관서에서 시행을 기피하는 등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漁港투자적어 漁民安全저해 最小限一千億원일 確保해야

孫희장대표 金泳三총재懇談會서 建議

수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로서 92년 4월 10일 6백46억의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93년 예산은 537억4천1백만원으로 10.9%나 감소했다. 이는 수산업의 안전을 위협하고 漁民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孫代表는 5개단체장 및 3개지회수산단체총회 27명 의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93년 예산이 1천억 원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孫代表는 각종 지원자금의 총합을 2조 2천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孫代表는 93년 예산이 1천억 원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漁港法 개정안 가을國會上程

어항법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9월 25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어항법개정안에는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어항법개정안에는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어항법개정안에는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1993년도 어항건설예산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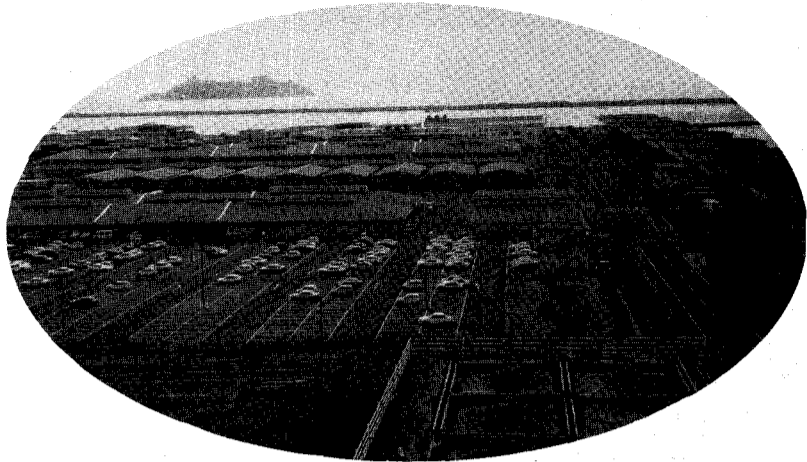
	'93예산요구	'93예산조정(A)	'92예산(B)	증감(A-B) (%)
계	95,278	53,741	60,331	△6,590 (△10.9)
제1종어항	85,278	48,430	54,430	△6,000 (△11.0)
- 3종어항	9,768	7,824	6,344	1,480 (23.3)
- 1종어항	75,510	40,606	48,086	△7,480 (△15.6)
제2종어항	10,000	5,311	5,901	△590 (△10.0)

앞으로 건설공사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던 건설업체를 2천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수입건설자재등의 대한 품질시험의 의무화된다.

이밖에 감리자에게 공사 중 지체시공명령권을 부여하고 부실공사감리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성으로가분어항 부지어촌기틀된다

第4回 '海外先進어항視察團' 結成 10月7日旅程을라...中國漁港도 살펴



■ 지난해 실시한 제3회 선진어항 시찰에서 시찰단은 일본 신나가사키어항을 시찰하고 항세, 관리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對象國단체公式案内 받아

새技術·管理法 등 익혀

한국어항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제4회 해외선진어항시찰단(이하 시찰단)을 29명으로 구성하고 시찰단원 구성을 마쳤다. 수산청 및 각 시도청 무원과의 협조로 기술·경영·관리·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찰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찰단은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 동안 중국을 시찰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중국어항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찰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어항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制裁業體도 금減額

建設部 施行令등 改正키로

건설부(이하 건설부)가 9월 25일 이관된 건설법(이하 건설법) 제100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이하 건설업체)에 대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건설업체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부는 9월 25일 이관된 건설법(이하 건설법) 제100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이하 건설업체)에 대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건설업체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鐵筋콘크리트劣化 防止법

일본 시미즈(清水)건설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열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정비했다. 최근 외산에 따르면 시미즈건설은 콘크리트구조물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관된 체계를 정비했다.

表面被覆「솔서트」 10년 이상 내구성 確認

솔서트(Sol-Sure)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피복해 콘크리트의 열화를 방지하는 신공법이다. 이 공법은 열화방지의 주요인인 내열해상 부차균열주충성이 뛰어난 유

부분을 방지피복하는 솔서트(Sol-Sure)는 2종류의 표면을 피복하여 콘크리트의 열화를 방지하는 신공법이다. 이 공법은 열화방지의 주요인인 내열해상 부차균열주충성이 뛰어난 유

盈德郡해안觀光休養地로

영덕군 해안일대 3백 60만평이 오는 2000년까지 관광휴양지로 종합개발된다. 영덕군은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1천 3백 50여만원을 투입하여 그 동안 미개발지역을 방치되어

▲申錫淳(수산청 어항과 개발)	▲李忠煥(수산청 시설과 관리)	▲丁景鉉(전북도청 농업수산국 수산과)	▲蔡忠錫(전북도청 우육군청 수산과)	▲金福洙(전남도청 수산국 어항과 시설계장)	▲李成煥(전남도청 고흥군청 수산과)	▲朴喆煥(전남도청 여천군청 어항과)	▲申時雨(전남도청 영광군청 어항과)	▲吳盛雄(전남도청 완도군청 어항과)	▲林圭鎬(전남도청 장흥군청 수산과)	▲文哲(전남도청 진도군청 수산과)	▲河聖讓(경북도청 농업수산과)	▲金光(경북도청 농업수산과)	▲李一雨(경남도청 마산시청 수산과)	▲金福童(경남도청 거제군청 수산과)	▲鄭南辰(경남도청 양산군청 수산과)	▲高永植(경남도청 울산군청 수산과)	▲梁錫久(제주도청 식산국 수산과)	▲曹設鉉(금광기업주식회사 과장)	▲宋承天(주식회사우주중합건설 토목부장)	▲成洛均(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차장)	▲宋寅哲(주식회사동일기솔공사 항만부 차장)	▲金行善(주식회사세일중합기솔공사 과장)	▲李南千(주식회사세일중합기솔공사 대리)	▲林正澤(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전문)	▲崔永洙(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업무부장)	▲尹錫煥(파라다이스 여행사 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金光企業新社屋

光州市北區신안로에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재철)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 6번지에 지하 3층 지상 16층의 새옥을 건립키로 했다. 오는 12월에 착공될 이

株式會社 唯一綜合技術團

서울特別市麻浦區東橋洞 174-13
TEL(02) 336-1854, 324-8954, 338-5971
(051) 441-1811~12
FAX 338-7586

會長 李炳周
 技術士(上下水道) 辛在龜
 代表理事 李義允
 專務理事 李一洙
 技術士(港灣及海岸) 孫一洙
 技術理事 林根燮
 技術士(港灣及海岸) 林根燮
 常任顧問 林根燮
 技術士(土木施工) 林根燮

主要業務

- 港灣의 開發조사, 整備, 計劃, 設計
 - 一般港, 貿易港, 工業港, 漁港
 - 防波堤, 防潮堤, 浚渫工事
 - 各種 港灣施設, 海洋構造物
 - 港灣施設의 安全診斷
- 各種土木工事의 計劃, 設計
 - 調査測量(陸上 및 水深)
 - 上, 下水道
 - 地域 및 都市計劃(工團造成)
 - 道路 및 空港
 - 各種運動施設
- 工事施工監理
- 環境影響評價代行

業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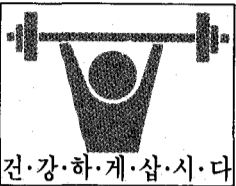
- 專門技術用役業(科技處 第3-13號)
 - 技術部門: 建設部門
 - 專門分野: 港灣及海岸, 上下水道 地域 및 都市計劃, 道路 및 空港
- 一般測量業(建設部)
- 工事施工監理專門會社(建設部)
- 海外建設業(建設用役)(建設部)
- 環境影響評價代行業指定(環境處)
- 鑛區境界測量代行業(鑛業登錄事務所)

漁港計劃樹立의要領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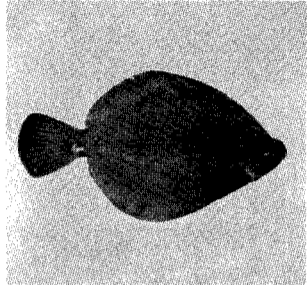
漁港施設用地

도다리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산란기로 온물의 염분이 알과 고니에 모이지기 때문에 산란기를 넘기고 새끼부터 새살을 채워가는 봄도다리를 알아주는 것이다. 도다리는 가자미목(目)의 어류로서 가자미속에 속한다. 넓적와 가자미(도다리)를 「조판(조)」(이 왼쪽에 있음)면 광의,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판)라하여 구분하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단 흰 아랫배쪽을 바탕으로 머리쪽을 사람쪽으로 놓는다. 튀어나온 눈 두개가 나란히 있는데 중심에서 왼쪽으로 돌려 놓는게 넓적이고 오른쪽으로 돌려 놓는게 도다리이다. 도다리는 총담 대천와 바다를 비롯근산역수 삼천포층



도다리

빠재먹으면 칼슘흡족



무부산등 납해안 지방에서 많이 잡힌다. 물은 마름도풀로 희색이거나 황갈색이다. 열구리에는 크고 작은 부성형의 압갈색 반점이 전면에서부터 플라잉형 수영처럼 아래위로 헤엄친다. 그래서 흰쪽을 배로 친다. 모래바닥과 펄밭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헤엄속도가 느려 등의 보호색을 활용, 은근려

재해있다. 눈이 없거나 작은 흰색이다. 다른 고기들은 물을 세워서 헤엄을 치는데 물이 납작한 도다리는 흰색을 밑으로 해서

있는 경우가 많다. 감들이 스며든 헤엄을 좋아하는데 깊이 바다는 가지 않는다. 새끼가 부화돼 전장 23mm 가 되면 작은 유충을 먹기

비늘만 쳐내고 빠재 잘게 썰어 먹으면 심신한 칼슘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 치아건강을 도와주는 데 일품

시작하는데 이때 왼쪽에 있던 눈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도다리의 입은 비교적 작은데 다른 고기와는 달리 앞린 형태에서 세로로 서있다. 그런데 도다리는 아무리 오래 자라도 물길이가 평균 30cm 이상 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살이 굵고 두꺼운 것을 주로 쓰는 초밥집에서는 도다리를 별로 쓰지 않는다. 횡집에서 많이 쓰는데 주부들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도다리가 가장 인기 있고 값도 비싸

비늘만 쳐내고 빠재로 잘게 썰어 먹으면 심신한 칼슘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 치아건강을 도와주는 데 일품이라고 한다.

다. 배치계획의 수순 어항시설용지의 배치계획의 수법으로서 현재 확립된 것은 없으나 도면2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서의 배치계획작성의 수순을 표시한다.

(1) 소요시설 종류의 결정 어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를 결정할 경우는 그 어항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요시설의 종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항법에서 정한 어항시설 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시설을 포함하여 어협이나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능한 한 필요한 시설의 종류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정비목표가 정하여지면 현재 있는 시설량과 그 시설비중으로, 긴급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이다.

(2) 소요시설의 규모 및 용지면적의 결정 필요한 시설의 종류를 결정하면 다음은 그 시설별 규모와 소요용지면적을 산정한다. 이 경우 건물도 할 수 있으면 입체화가 가능한 것, 겸용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등을 검토하여 용지면적을 구한다.

(3) 물건과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 어항에 양륙되는 어획물의 흐름과 자동차, 사람등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이러한 경우는 안벽, 물양장, 배후지역과의 연락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어항의 실적이나 다른 예를 참고하여 최적의 흐름에 대하여 예측한다.

(4) 시설 상호관련의 분석 소요시설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다. 각종의 시설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는등 상호관련성이 있다.

(5) 배치계획의 시안작성 이상의 (1)내지(4)에서 설명한 것을 기초로하여 지형에 맞게 평면도에 배치한다. 이 검토 방법은 시설별의 소요면적과 형상을 평면도와 그 축척을 카드로 작성하여 이것을 평면도에 배치 하면 하나의 시안이 되나 이것을 여러가지로 배치하여 봄으로써 여러가지 종류의 안이 된다. 새로운 형상의 변경이 가능한 용지에 대하여는 형상을 바꾸어 작업을 다시하여 가급적이면 많은 시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평가 배치계획을 여러종류로 작성한 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평가를 행한다.

(가) 수정조건 주로 이용효율면에서의 검토로서 배치계획 작성상의 내부조건에 대한 것이다.

- 수제선의 관련성
- 어획물의 흐름
- 육상교통
- 어항환경의 보전
- 장래의 발전성, 확장성의도
- 용지이용의 효율성, 융통성
- 건설순서와 이용가능부분에 의한 효과 발휘성
- 인접지구와의 접합성
- 관리의 용의 정도

(나) 제한조건 외부에서 미치는 조건으로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소방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 자금면에서 생기는 제한
- 다른 사업과의 관련에 의한 제한 (수산관계 타사업, 도로사업, 도시계획사업, 항만사업, 하수도사업, 하천사업등)
- 지구주민과의 조정 (계획 그 자체에 관한 조정, 개인재산등에 관한 조정)
- 지역 습관

성한 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평가를 행한다.

(가) 수정조건 주로 이용효율면에서의 검토로서 배치계획 작성상의 내부조건에 대한 것이다.

- 수제선의 관련성
- 어획물의 흐름
- 육상교통
- 어항환경의 보전
- 장래의 발전성, 확장성의도
- 용지이용의 효율성, 융통성
- 건설순서와 이용가능부분에 의한 효과 발휘성
- 인접지구와의 접합성
- 관리의 용의 정도

(나) 제한조건 외부에서 미치는 조건으로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소방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 자금면에서 생기는 제한
- 다른 사업과의 관련에 의한 제한 (수산관계 타사업, 도로사업, 도시계획사업, 항만사업, 하수도사업, 하천사업등)
- 지구주민과의 조정 (계획 그 자체에 관한 조정, 개인재산등에 관한 조정)
- 지역 습관

退職金 '綜所稅' 합산안해

給與종류별로 一定比率를 控除 혜택

生活經濟

生活經濟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

○ 필요경비

취득가액의 그동안 들어간 설비비, 개량비, 각종 세금, 소개비 등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양도소득특별공제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를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를 해준다.

특별공제액=취득가액×도매물가상승률×소유월수/12

단, 도매물가 상승률은 86.6.30이전까지는 연 15%까지, 그 이후는 5%까지만 인정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때에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裸地)는 제외한다.

○ 양도소득공제

연간 150만원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율과 세액의 계산

○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된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자산의 종류, 소유기간에 따라 다음표와 같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

하지 아니한다.

신고와 납부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도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시에는 산출된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 기타 모든 소득을 말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수입의 일부를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타내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퇴직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 퇴직소득세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득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액-퇴직소득특별공

제액-퇴직소득공제액=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종합소득 기본세율×근속연수=퇴직소득세액

○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 일반퇴직급여액 50/100
- 명예퇴직 수당 75/100
- 단체퇴직보험금 50/100

○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일정한 금액으로 아래표와 같다.

		자산의 구분	세율	
토지	보유기간	①국민주택	30%	
		②기타	40~60%	
건물	2년이상	과세표준금액	3천만원이하	40%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45%
			6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55%
			5억원초과	60%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보유기간 2년미만	④미등기 양도자산	60%	
		⑤일반주식	75%	
		⑥중소기업주식	20%	
비상장주식		10%		
기타자산		②와		